

## 기혼자녀와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동

손 서 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

김 명 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는 달리 부양인구의 감소 및 공적 부양체계의 미비는 노인부양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전망이다. 공적 부양체계의 한계에 따라 가족 중심의 사적 부양에 대한 요구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므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자로서 성인자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 부양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장남에서 모든 자녀의 참여로 변화되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기혼자녀가 본인의 원부모에게 제공하는 부양행동의 수준은 어떠하며, 자녀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부모님이 적어도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신 만 3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자녀 6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연구 자료는 SPSS 1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요인분석, Pearson 적률 상관계수, t-test, one-way ANOVA,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자녀들의 부모와의 정서적 결속도는 5점 만점 중 3.47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전체 부양행동은 평균 3.09점으로 보통이상의 수준이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부양행동(3.42점), 경제적 부양행동(2.94점), 서비스적 부양행동(2.84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자녀의 부양행동을 배경변인 및 정서적 결속도로 살펴본 결과, 자녀 관련 변인으로는 출생순위 및 직업이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부모관련변인으로는 부모님의 생존여부, 어머니의 연령, 소득수준, 거주형태, 거주 근접도가 부양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결속도가 기혼자녀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어, 정서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부모에게 제공하는 부양행동이 많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자녀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는 자녀의 자발적인 부모 부양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아들과 딸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아들과 딸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아들의 경우 거주 근접도와 정서적 결속도만이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주근접도가 멀수록, 정서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부양행동이 높았다. 딸의 경우 자녀의 직업 및 소득수준, 부모의 소득수준, 거주형태, 거주근접도, 정서적 결속도가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직업이 경영관리·전문직일수록, 자녀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거주근접도가 가까울수록, 정서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부양행동을 많이 하였다. 이를 통해 아들과 딸이 서로 다른 동기로 부양에 참여하고 있을 알 수 있었다. 아들의 경우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요소에 관계없이 부모부양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딸의 경우 본인의 직업이나 소득, 부모의 소득, 거주형태, 거주 근접도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소에 따라 제공하는 부양의 정도가 달라져 부양행동에 있어서 딸이 아들보다 조건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혼자녀의 부양행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아들과 딸 즉, 성별에 따른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